

# 나의 책 나의 학문

安秉禧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 1.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국어학을 전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우연과 해방의 상황이 복합된 결과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일제 시대 지금의 초등학교 4, 5학년 무렵으로 기억하는데, 당시로는 제법 예쁜 책받침 하나를 얻은 일이 있다. 준 사람은 까맣게 잊었지만 책받침의 앞뒤는 아직도 머릿속에 뚜렷이 남아 있다. 그 한쪽에는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 일본의 씨름꾼의 사진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일본 가나의 로마자표가 있었던 것이다. 로마자표는 학교에서 가르친 것이 아닌데, 왜 책받침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 표를 혼자 이리저리 뜯어 보면서 가나를 알파벳으로 분석하는 일은 어린 나이에 여간 신기하지 않았다. 한글부터 배우는 요즘 어린이들이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겠지만, 음절 하나를 가나 한 글자로 배우 나로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일로써 음절의 음소 분석, 나아가 희미하게나마 언어의 체계적인 사실에 눈을 뜬 것이다. 이것이 내 전공의 결음마라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지 모른다. 그러나 책받침 한 장과의 우연한 만남, 그것은 내 전공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고 나는 가끔 생각한다.

해방을 맞은 것은 초등학교 6학년의 여름방학 때다. 방학이라 하지만, 나는 학교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학교에서 숙식을 하면서 병역의 연령을 넘긴 장정들의 군사훈련에 이런저런 심부름을 하고 있었다. 오후에는, 시골이라 기차역으로만 배달되는 신문을 찾아오는 심부름도 하였다. 8월 15일, 그날 어딘지 분위기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었으나 오후에 내가 가져온 신문으로 비로소 훈련이 중단되어 모두 해산되었다. 나도 해방되어 집으로 갈 수 있었다. 그때부터 어디서나 국어를 마음대로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당시를 회상하면, 요즘 흔히 말하는 광복보다 해방이란 말이 지금도 실감나게 가슴에 와 닿는다.

학제가 바뀌어 이듬해 가을에 중학에 진학하였는데, 고향인 쑤저우의 중학 국어교사 중에는 이웃 고을 출신인 고루李克魯선생에게 배웠거나 영향받은 분들이 있었다. 거기에 국어와 한글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컸던 시대라, 국어 수업에 여간한 열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분들에게서 국어와 한글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한자 폐지에 대한 당위성을 듣게 되었다. 중학 시절에 국어학 관계 책들을 이것저것 훑어보게 된 것은 모두 그분들의 영향이다. 온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나 그런 책들로 해서 실업중학을 다닌 처지에 감히 국어학을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이다. 해방의 시대 상황,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된 고향인 쑤저우의 분위기가 내 일생의 방향을 정해 준 사실은 분명한 일이다.

학제가 다시 바뀌어 1952년 4월에 피난지 쑤산에서 대학의 국어국문학 과에 입학하였다. 대신동 산비탈에 세워진 천막 교사의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이름만 알던 저명한 교수를 가까이서 뵈고 배울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전공은 달랐으나 일찍부터 뜻한 공부를 하게 되어 의욕에 넘쳐 있던 동기생 몇 사람으로 하여 나도 1학년에서부터 전공 강의에 출석하였다. 지금은 자모도 아물아물 잊어버린 지경이지만 몽골어를 배우고, 알타이어학(강좌 이름은 거창하나 내용은 전혀 판관이었다)이란 강의도 들었다. 함께 수강한 3, 4학년 생인 선배들에게 시골뜨기 신입생인 내 당돌한 행동이 우습게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 그러나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 강의를 수강하였고, 때로는 학

점과 상관없이 청강도 하였다. 환도한 서울에서 졸업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내 대학생활은 시종하였다.

입학하였을 때 국어국문학과 교수는 一石 李熙昇, 心岳 李崇寧, 一簣 方鍾鉉 선생 세 분뿐이었다. 모두 국어학 전공이니 문학을 전공하려는 동기생의 불만과 불평은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에게서는 여간 큰 행운이 아니었다. 책으로는 배우지 못한 학자로서의 인품과 학문 연구의 태도와 함께 국어학의 여러 분야를 一石, 心岳 두 분의 강의를 통하여 배우고 공부하였다. 중학교에서 가졌던 국어와 한글에 대한 편협하기조차 한 시야를 조금씩 넓히게도 되었다. 나에게 한 사람의 학자로서, 내 많지 않은 논문에 국어학 업적으로서 취할 것이 있다면 두 분 선생의 가르침으로 얻은 것이라 믿고 있다. 一簣 선생은 학장으로서 주재한 단과대학 입학식과 송도에서 있었던 국문과 신입생 환영식에서 뵈었고, 청강만 한 「春香傳 강의」에 딱 한번 참석하여 뵈는 것이 전부다. 「春香傳 강의」도 병환 때문에 그 시간으로 중단되고 11월에 작고하여 전공 강의를 받지 못한 일은 늘 아쉽게 생각된다. 그러나 환도 직후에 유족이 기증한 선생의 수많은 옛 전적을 정리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고, 뒤에 자세히 읽은 선생의 논문을 통하여 서지학의 식견을 조금이나마 갖게 된 것은 오로지 선생의 學恩이 아닐 수 없다.

내 학문을 말할 때에 빠뜨려서 안될 것은 국문과 합동 연구실이다. 부산에서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환도하자마자 중앙도서관의 서부 연구실 2층 구석의 꽤 넓은 연구실이 그곳이다. 지금은 강의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건물이 헐리어 흔적조차 없어졌는데 그곳은 원래 국문과의 선배들이 공부하던 유서 깊은 연구실이다. 그때는 복개되지 않은 대학천과 대학로를 사이하여 의과대학을 바라보는 한적하고 좋은 자리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공간보다 서가에 빼곡이 꽂힌 도서가 준 혜택이 잊혀지지 않는다. 환도 직후에 도서관 서고에서 선배가 뽑아 놓은 양장본과 한적을 옮겨 와 서가에 꽂았는데, 한적은 奎章閣도서를 제외한 일반 고도서에서 국어사 자료가 거의 망라되었다. 『楞嚴經諺解』, 『法華經諺解』, 『圓覺經諺解』 등 刊經都監의 언해본 등이 그 속에 포함되었음은 물론이다. 오늘날에는 영인본으로 이들을 손

쉽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원전으로만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때에 마음 내키는 대로 수시로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꿈같은 일로 여겨진다. 뒤에 도서관에서 회수하여 갈 때까지 나는 이들 책들을 읽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때 수집된 자료는 지금까지 내가 활용하고 있으니 그 도서의 고마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연구실에 비치된 『楞嚴經諺解』 10권에서 권2 1책은 乙亥字本으로 配補되어 있었다. 목판본과 활자본은 行格이 달라서 그 권2도 목판본과 張次가 어긋난다. 내 초기의 글에 인용된 그 책의 예문은 출전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말도 그런 연유로 나온다. 그만큼 나에게게는 그때 연구실의 언해본이 절대적인 영향과 힘을 주었던 것이다.

## 2.

학계에 처음으로 발표한 논문은 一石선생의 회갑기념논문집에 실은 『重刊杜詩諺解』에 나타난 t구개음화에 대한 것이다. 1957년의 일이니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가 된다. 내용은 어떤 음운변화의 연대를 그 변화가 확인되는 문헌 자료의 연대만으로 추정하여서는 변화의 연대가 정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담은 것이다. 배경이 된 방언이 다르면 변화가 나타나는 문헌 자료의 연대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구개음화의 예증으로 논한 것이다.

그리하여 국어사 연구에 문헌 자료의 연대뿐 아니라 간행 지역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이 글은 내 국어학 연구의 첫 성과면서 그 이후의 연구가 조금씩 이와 관련된 점으로 그 방향을 결정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런데 이 글은 1955년 가을 학기, 곧 대학의 마지막 학기에 一石 선생의 강의에 출석하고 제출한 기말 리포트를 조금 손질한 것이다. 그 리포트는 1989년 11월에 선생이 돌아가신 뒤 유품을 정리한 田光鉉 교수가 선생의 책 지하실에서 찾아내어 다시 내게 와 있다. 여러 가지로 내게는 사연이 있는 글인 셈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후배들은 학부 생활이 일생의 학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겨 주었으면 고맙겠다.

석사학위논문은 1959년 겨울에 작성되어 『國語研究』 7(유인본)로 발표

된 「十五세기 국어의 활용어간에 대한 형태론적 연구」이다. 앞에서 말한 연구실의 언해본과 당시에 나오기 시작한 『釋譜詳節』, 『月印釋譜』 등의 영인본에서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15세기 국어 활용어간의 형성과 교체를 정리한 내용이다. 그 내용이 지금은 거의 상식처럼 되었으나, 발표 당시에는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던 음절 말음인 ㅅ과 ㅌ의 차이라든지 ‘ㄱ-~것-’(折) 등 어간의 교체를 내 나름으로는 정확하게 기술한 것이었다. 유성적 환경에서 음절말음 ㅅ이 ㅌ으로도 교체되는 사실을 수의적인 현상으로 파악한 것도 최초의 일로 생각된다. 요컨대 기술언어학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중세국어 문법의 한 연구이다. 약간의 자구 수정과 補註를 붙여 1978년 같은 제목으로 『國語學研究選書』의 하나로써 출판되었으니 나로서는 영광이 아닐 수 없다.

이보다 1년 앞선 1958년 11월에 열린 국어국문학회 주최의 제1회 전국국어국문학회연구발표대회에서 중세어의 否定語 ‘아니’에 대한 발표를 행하고 이듬해 『국어국문학』에 게재되었다. 현대어의 이른바 지정사로 다루는 중세어 ‘아니라’를 체언 ‘아니’의 활용으로 다룬 내용이다. 그뒤로 겸양법접미사 ‘-습-’, 공손범어미, 의문법의 체계, 속격어미 ‘ㅅ’ 등 중세어의 문법 현상에 대한 논문을 간헐적으로 발표하였다. 이들은 1992년의 『國語史研究』에 수록되어 있다. 잡지나 논문집에 흩어져 게재된 것을 모아 놓아 쉽게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중세어의 문법을 단편적으로 다루는 한편 체계화하여 종합적으로 다룬 일도 있다. 1967년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기획하여 출간된 『韓國文化史大系 V』의 「한국어발달사」 중 문법사가 그 하나다. 제목과 같이 국어 문법사를 조망한 글이나, 실제로는 중세어를 중심으로 하여 그 전후의 변화를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1990년에 李瑛鎬 교수와 함께 『中世國語文法論』을 내놓은 일도 있다. 그 두어 해 전에 편찬된 방송통신대학 교재를 수정한 것인데, 중세어의 문법을 요점 중심으로 서술한 대학 교재이다. 이름이 공저이지만 실지로는 李 교수가 집필하고 나는 통독하면서 약간의 수정과 보완을 한 데 지나지 않는다. 공저라고 할 처지가 못 되나, 출간 당시의 중세어 문법에 대한 내 생각과 다른 내용은 없으므로 여기에 들어 둔다.

1970년대에 들면서 나는 중세어 문법과 전혀 무관하지 않으나 결코 그 본령이 아닌 국어사 자료에 대한 조사와 연구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다. 어쩌면 최초의 논문인 『重刊杜詩諺解』에 대한 글에서 제기한 국어사 자료인 문헌 하나하나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기 시작한 셈이다. 그 검토는 一簣 선생이 돌아가신 뒤로 국어학계에서 돌보지 않던 서지학적인 데에 초점을 맞추면서 문헌이 갖는 국어사 자료로서의 의의를 구명하는 작업이었다. 널리 이용되던 자료의 성격도 새로이 밝힌 것이 있으나, 새로운 중세어 자료도 발굴하여 학계에 소개하였다. 발표 순서대로 들어보면 『改刊法華經諺解』, 『新增類書』, 『呂氏鄉約諺解(원간본)』, 『六字神呪』, 『重刊警民編』, 『阿彌陀經諺解(활자본)』, 『法集別行錄諺解』, 『月印釋譜』 권11, 12, 『五大眞言(한글판)』, 『于公奏議輯覽』, 『擇稿輯覽』, 『奏議及稿輯覽』, 『神仙太乙紫金丹』 등 10여 종이나 된다.

한편으로 1979년에 「중세어의 한글자료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란 논문으로 그때까지 내가 조사한 중세어의 한글 문헌을 모두 소개하였다. 그 뒤로 발굴된 자료로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꽤 있지만, 중세어 자료에 관한 한은 종래의 연구를 일신한 것으로 감히 생각하고 있다. 이 밖에 국어사 자료를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글 2편이 있다. 최초의 논문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문헌 자료의 성격은 간행의 연대뿐 아니라 지역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중세어 자료를 다루면서 그 밖에 편찬 태도도 참작되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편찬 태도는 비슷한 연대의 언해본에서 의역과 직역이라는 번역 양식에 따라 같은 원전이 사뭇 다른 성격의 자료를 보인다. 이를 다룬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자료의 검증과 해석 문제를 다룬 것이다.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 오자와 탈자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여 일어난 잘못된 서술이 국어사에 있는가 하면, 올바르게 된 자료를 잘못 읽고 해석한 결과로 생긴 엉뚱한 서술이 있음을 예증으로 하여 국어사 자료를 올바르게 이용하였으면 하는 의도로 쓴 글이다. 이들은 위의 새로 발굴한 자료의 소개와 함께 모두 1992년의 『國語史資料研究』에 수록되어 있다.

국어사 자료의 연구로서 최종 보고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으나 만몽어의 역학서를 제외한 규장각의 국어사 자료에 대한 해제와 서지를 교열한 일을

덧붙이고자 한다. 李相澤 교수가 규장각 관장으로 있을 때에 기획하여 착수한 「규장각소장 어문학자료의 문헌학적 정리」란 연구 사업(1998-2000)에서 국어사 자료에 관한 것은 거의 모든 원고를 혼자서 교열하였다. 자랑처럼 되어 쑥스럽지만 교열은 흔한 교열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하였다. 제출된 대학원생들과 그 출신의 원고에 잘못이나 미흡함이 있으면 철저하게 수정하고 보완하였다. 연구 사업의 결과보다는 그러한 교열로써 강의로는 할 수 없는 서지학 내지 국어사 자료 연구의 연습을 한 점으로 나는 큰 보람을 느낀다. 이에 李 교수에게 깊은 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973년 가을부터 1975년 봄까지 하버드 연칭학사의 장학금으로 일본과 대만의 국어사 자료를 조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주요한 도서관의 한국본, 특히 국어사 자료는 꽤 조사하여 앞에 새로 발굴한 자료로 든 몇은 그때 찾아낸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는 구결 자료를 조사하는 계획도 있었다. 구결을 인쇄한 16세기의 『書傳大文(乙亥字本)』, 『周易大文』과 함께 붓으로 써 넣은 『心經附註』, 『初發心自警文』 등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후자는 큰 의미가 있다. 당시는 구결의 연구가 인쇄 자료를 대상으로 행해지고 필사 자료는 외면되고 있었다. 구결을 언제 써 넣었다는 기록이 없어서 자료의 연대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진란에 일본에 간 것이 분명한 문헌에 쓰여진 구결은 연대의 하한이 분명하다. 다행히 위에 말한 두 책을 조사하게 되어 그곳의 구결을 기준으로 하여 붓으로 써 넣은 중세국어 구결도 연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결과와 인쇄된 구결에 대한 연구가 학위논문인데, 색인을 붙이고, 제목을 좀 일반적인 것으로 바꾸어 출간한 1977년의 『中世國語 口訣의 研究』가 바로 그것이다.

이와 비슷한 시기부터 이두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1977년의 『養蚕 經驗撮要』, 『牛馬羊猪 染疫治療方』에 나타난 이두를 비롯하여 『大明律直解』의 이두와 이두의 학습서에 대한 글들이다. 그 학습서로서 『吏文大師』와 『吏文』을 처음으로 학계에 소개하였다. 먼저 관아의 이두 문서에서 요긴한 한자성어와 이두를 가려내어 『吏文』이 편찬되었고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吏文大師』가 이루어진 사실, 『吏文』의 한 異本 간기가 1658년(효종 9)인 점으로 거기

의 이두 독법이 적어도 17세기 중엽까지 소급되는 사실 등을 밝히게 된 것이다. 이들 학습서에 대한 논문을 1987년 『國語學研究選書』의 하나로 출간된 『吏文과 吏文大師』에 수록되었다. 그 뒤에 다시 『吏文』 3종, 『吏文大師』 4종의 異本을 조사하였는데, 『吏文大師』의 한 책에는 1679년(숙종 5)의 간기가 있다. 17세기 이후로 이들 학습서가 널리 보급된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으므로 최근에 논문으로 학술지에 기고하였다.

이 밖에도 국어학의 몇 주제를 다룬 논문이 있으나 묶어서 말할 것이 못된다. 다만 국어학 연구에 뜻을 둔 사람이면 누구나 관심을 갖는 訓民正音에 대하여는 몇 편의 글이 있다. 1976년의 『訓民正音(解例本)』 이본에 대한 글을 비롯하여 그 첫 2장의 복원 문제와 언해본, 한자의 造字法과 관련한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 훈민정음의 사용과 보급의 역사 등을 다룬 것들이다. 이들은 모두 『國語史研究』에 수록되었다. 그 뒤에 서문의 '便於日用'의 의미와 解例本の 복제에 대하여 논의한 글이 더 발표되었다. 요컨대 해례본과 언해본에 대한 서지를 내 나름으로 구명하고, 서문에 나오는 '便'과 制字解에 대한 해석과 이해로써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과 제자 원리를 폭넓게 살펴보려 한 것이다.

### 3.

평범한 시골 소년이 우연히 만난 책받침과의 인연과 해방 직후의 분위기에 휩쓸려 대학에 입학하여 국어학을 공부한 지 어느덧 반 세기가 되었다. 주어진 원고 청탁으로 그 사이에 내가 한 국어학 연구를 되돌아보면서 제법 의미 있는 업적인 양 이것저것 나열하였다. 그러나 냉정하게 따져 보면 보잘것없다. 논문이라고 하였으나 화려한 이론도 없고 눈에 떨 내용도 없어 보이는 것들이다. 이른바 라이프워크라면 더욱 거창하고 큰 업적이라 이름하더라도 내세울 것이 아예 없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될 수만 있다면 앞으로 생명이 긴 업적 하나라도 남겼으면 하는 욕심이 있다. 매년 욕심으로 끝난 전철을 밟을 것이 뻔하나 이 공개된 욕심으로 스스로를 움아매고 싶은 것이 지금

의 솔직한 심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내 연구에서 굳이 찾으려 스스로 위안될 것이 없지는 않다. 일상생활에서 표방한 知足安分의 태도를 연구 생활에서도 그대로 지니려 한 것이 그러하다. 아무리 매력이 있고 인기가 있는 주제라도, 패기가 없는 일인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나 내 능력을 넘어서 손댄 적은 없다. 국어사를 전공하였으나 그 중에서도 그 기초가 되는 국어사 자료의 조사와 연구가 주류를 이룬 것이 바로 그러한 태도에 말미암는다. 그 조사와 연구는 자료를 철저히 검증하고 정확하게 해석하여 자료의 이용이 과장되거나 허황되게 하지 않으려 하였다. 그것이 논문으로 잘 나타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나를 알거나 내 글을 읽은 후배들에게 조금은 전달되지 않았을까 한다. 그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감히 생각한다.

다른 하나는 중학 시절에 배운 국어와 한글에 대한 사랑을 용케도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일이다. 한글과 국어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훌륭하다는 거의 맹신에 가까운 사랑은 이미 아니다. 그 단점까지도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니 국어에 대한 사랑은 더욱 크고 깊은 것이 아닌가 한다. 국어학으로만 살아온 것도 그렇거니와 맞춤법에 대한 한두 편의 글과 해설서를 쓴 것도 그것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겉으로 성과가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나라의 어문 정책을 연구하고 결정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더욱 그러하다. 학문 연구의 외도라 할 그 일에서 편협하지 않고 올바른 어문 정책을 수립하여 궤도에 올려 놓으려 내 나름으로는 노력하였다. 그 정책에 불만을 가진 개인이나 특정의 집단이 있는 것은 잘 안다. 그러나 나도 그들에게 못지않게 국어에 대한 사랑으로 한 일이므로 떳떳이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생을 받기만 하고 무엇 하나 보답하지 못한 나로서는 국어학으로 이끌어 준 중학 선생에 대한 보은이라고도 생각되어서, 더욱이나 작은 위안이 아닌 것이다.